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팔딱팔딱 목욕탕』

정보 전준후 글·그림 | 44쪽 | 230*230mm | 양장 | 13,000원

주제어 상상, 자유, 소통

교과 연계

- 2학년 2학기 국어 2.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 3학년 1학기 국어 6. 일이 일어난 까닭
- 3학년 2학기 국어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 4학년 1학기 국어 2.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5학년 2학기 국어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무더위를 날려 버린 목욕탕 대소동!
답답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특별한 공간!
어른이 아이가 되는 팔딱팔딱 목욕탕!

무지무지 더운 여름날, 아빠는 준우에게 목욕탕에 가자고 합니다. 준우는 아빠의 말이 맘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지 냉큼 아빠를 따라나섭니다. 한 손에 수상한 검은 봉지를 쥐고요. 준우는 목욕탕에 도착하자마자 냉탕으로 달려가 검은 봉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풀어 놓죠. 그리고 준우가 냉탕에 풀어 놓은 물고기들이 만들어 준 소동을 계기로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어 물고기를 잡으러 모입니다.

『팔딱팔딱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벗어버린 건 입고 있는 옷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서 하나둘 입게 되는 마음의 겉옷이기도 합니다. 처음 목욕탕에 가면 발가벗은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알몸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겉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가끔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드는 쑥스러운 느낌처럼 말입니다. 그때 준우처럼 누가 한 사람이 본모습을 드러내면 모두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어색함을 날려버리고 속마음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무더운 여름날처럼 마음이 답답하다면 잠시 마음의 겉옷을 벗고 서로의 본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목욕탕 같은 곳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의 본모습을 마음껏 드러내 보세요.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고 팔딱팔딱 뿜지도 모릅니다.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이 독서 지도안은 10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팔딱팔딱 목욕탕』은 어떤 책일까요?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2	* 목욕탕에 가면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가기
읽으면서	책 속으로 쑥! 들어가요	3	* 물 만난 물고기 소동! -이야기의 소재로 상상하기
		4	* 모두의 힘을 모아서 -등장인물의 마음 이해하기
		5	* 서로의 속마음을 마주할 때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6	* 우리가 입는 마음의 겉옷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7	* 마음이 팔딱팔딱 뛰는 순간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8	* 어른이 아이가 되는 시간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9	* 같이 팔딱팔딱 목욕탕으로 놀러 갈까? -이야기 재구성하기
		10	* 목욕탕 다음은 수영장으로 가다? -네 컷 만화 그리기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책을 읽기 전 계획과 기본 정보를 다진다.
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림책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팔딱팔딱 목욕탕』은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 표지 그림을 펼쳐 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 속에서 펼쳐질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표지 안에 ()이(가) 보여요.
내가 상상하는 책 속 이야기는...



경험을 나눴어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간다.

목욕탕에 가면

◎ 목욕탕 혹은 사우나 같은 장소를 가 본 경험이 있나요? 그날의 기억을 나누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목욕탕'은 어떤 장소인가요?



목욕탕에 가 본 경험이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목욕탕'은 어떤 장소인가요?



생각을 나눠요

이야기의 소재로 새롭게 나의 상상을 풀어내 본다.

물 만난 물고기 소동!

◎ 준우는 목욕탕에 도착하자마자 냉탕으로 달려가 검은 봉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풀어 놓아요. 물고기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빠는 어쩔 줄 모르고, 준우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죠. 이때, 탕 안에 흩어진 물고기들을 수습하고 이 소동을 해결할 기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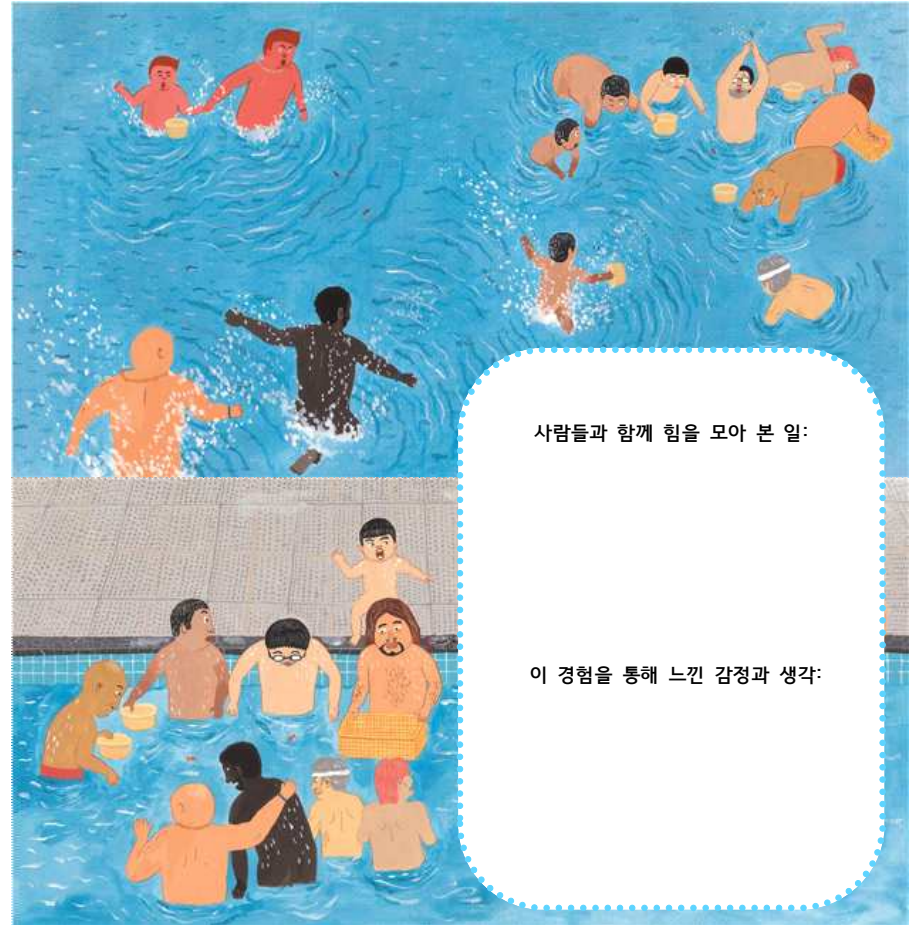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나의 경험을 돌아켜보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모두의 힘을 모아서

◎ 준우와 아빠, 목욕탕 손님들은 함께 힘을 모아 물고기 소동을 수습해 갑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본 경험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본 일: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과 생각: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주제를 성찰한다.

서로의 속마음을 마주할 때

◎ 익숙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가진 저마다의 속마음과 본모습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친구와 가족 등의 이들에게 나의 본모습을 터놓아 본 적이 있나요? 또, 다른 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은 언제였는지 함께 적어 보세요.



<p>다른 이에게 나의 본모습을 터놓은 적은?</p>	<p>다른 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은?</p>
-------------------------------	-----------------------------



생각을 정리해요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우리가 입는 마음의 겉옷

◎ 우리는 자랄수록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상황에 적합한 옷을 입는 법을 배웁니다. 학생은 교복을, 의사는 의사 가운을, 경찰은 경찰복을 입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에 입는 겉옷 안엔 지켜야 할 책임이나 의무도 들어 있지요. 현재 나의 마음을 두르고 있는 겉옷은 어떤 옷인가요? 그 옷을 입은 나와, 잠시 벗고 본모습으로 돌아온 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의 마음에 두른 겉옷은 무엇인가요?

겉옷을 입은 나의 '겉'모습과, 겉옷을 벗은 나의 '속'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험을 나눠요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주제에 다가간다.

마음이 팔딱팔딱 뛰는 순간

◎ 준우가 일으킨 목욕탕 소동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재미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내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던 기억이나 인상 깊은 소동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나에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던 기억이나
인상 깊은 날이 있었나요?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주제에 다가간다.

어른이 아이가 되는 시간

◎ 목욕탕의 어른들은 물속의 물고기를 잡으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어 이 상황을 유쾌하게 즐깁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처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이웃분들 등등, 내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느껴지던 순간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놀던 모습은 언제였나요?

상상을 표현해요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재구성해 본다.

같이 팔딱팔딱 목욕탕으로 놀러 갈까?

◎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답답한 마음까지 어느새 시원해지는 팔딱팔딱 목욕탕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같이 목욕탕에 가고 싶은 이를 떠올려 보고, 함께 목욕탕에서 해 보고 싶은 일을 그려 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요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며 주제에 다가간다.

목욕탕 다음은 수영장으로 가다?

◎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는 준우가 또다시 검은 봉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목욕탕이 아니라 더 큰 수영장이네요! 과연 준우가 물고기와 함께 찾아가는 수영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롭게 상상해 네컷만화로 그려 보세요.